



한·미 FTA 바르 알아기
2006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머리말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서도 우리의 설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로서 한·미 FT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안정적 수출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의 경제체질과 구조를 많이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그와 같은 오해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본원 무역투자정책실의 이경희, 박지현, 강준구 전문연구원과 김혁황, 김정곤, 박혜리, 박미희 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습니다. 자료의 집필 및 편집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본원 무역투자정책실 담당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무쪼록 이 자료가 일반 국민들이 한·미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경태

08

09

09

10

11

12

13

13

18

20

21

22

23

24

26

28

29

30 III 한·미 FTA 꼼꼼히 뜯어보기 -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31 \Y% Ö¥ %ì Úx_œ Ž³@

33 ;® ½œf ÆWâ ð€¥¶ Ýì³@

37 ð€ =Ž “Á³@

41 ð€% w?Bö=| # »ìx ³@

44 B!, E Üœœ ð€% ¹_ö=Ü >_x •øK*³@

47 »ìö=¥ ÁÁ ÁĴŽ §% ¼;Ă³@

49 œ?œ¥¶ ~Ž >³@

51 q“ö=% r,,Ž 4Ú³@

53 -x_f Q_`³@

54 \Y| •ĭ fÉÁ ÆIÑŠ GUBx ÚxÁ³@

56 OBGUB Žv ±K” È&œ Ĩñ 4Ōú3³@

i

한·미 FTA 이해를
위한

우밍어



세계로 가는 기차

FTA

자유로운 무역이란?

●

나라간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의 대표적인 장애물은 수입품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또한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쿼터도 대표적인 무역장벽입니다. 그 밖에 무역을 가로막는 요소들로는 기술장벽(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술요건 및 규정,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준 등)과 동식물 검역 및 수입 절차, 그리고 자의적인 반덤핑규정 운용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무역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소득수준을 기록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품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로운 무역은 국가간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부존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가 최대한 효율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유로운 무역은 모두가 윈-윈(win-w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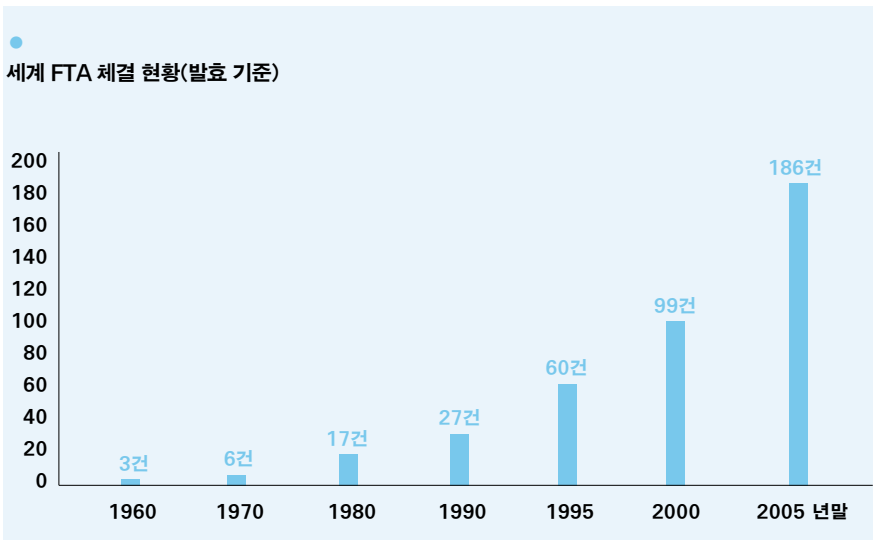
- 모든 나라들은 각자 잘 만들거나, 만들기에 유리한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서로 물품을 교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은 한 나라가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보다 싼 값에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필요한 상품을 싼 값에 수입하고 남은 자원은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여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 분야가 보다 우수한 외국 상품에 밀리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국가의 산업은 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의식을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제 체질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1950~60년대 TV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간판이었으나 값싼 일본산에게 점차 자리를 빼앗겼고 잇단 공장 폐쇄로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은 이후 정보통신, 제약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TV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훨씬 더디었을 것입니다. 1960년 TV 한 대를 사기 위하여 미국의 노동자는 2주를 일해야 했습니다(21인치 TV 가격: 180달러, 제조업 평균 주급 90달러). 그러나 1999년 현재 소니 20인치 TV를 사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는 약 2.5일만 일하면 됩니다(TV 가격: 280달러, 제조업 시간당 임금 13.49달러). 이러한 부의 증가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계 는 F T A 를 선 택 했 다

-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약자입니다. FTA는 둘 이상의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경제통합의 일종입니다. 관심 있는 국가간의 협상에 의해 신속하게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은 앞다투어 FTA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FTA는 주로 산업 전반의 관세 철폐를 주내용으로 하지만, 관세 이외의 투자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등 보다 심도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림에서 보듯이 1990년 초 27건에 불과했던 FTA가 2005년 말 현재 186건으로 급증하여 이제 FTA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경제통합을 수십 년간 추진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 한때 FTA와 같은 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들도 앞다투어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로 가는 기차에 탑승



우리나라는 국내 자원과 시장의 규모가 한정된 나라입니다. 그러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것은 일찍이 무역에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FTA는 우리나라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가 비회원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을 적용하기에 때문에, 다른 국가간의 FTA 체결은 결과적으로 우리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FTA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FTA는 우리 상품을 상대국에 보다 많이 팔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방을 통하여 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경제 및 사회제도 전반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오랫동안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했던 인도는 1990년대 초 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IT를 중심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가 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IT산업은 좁은 국내시장의 테두리에 묶여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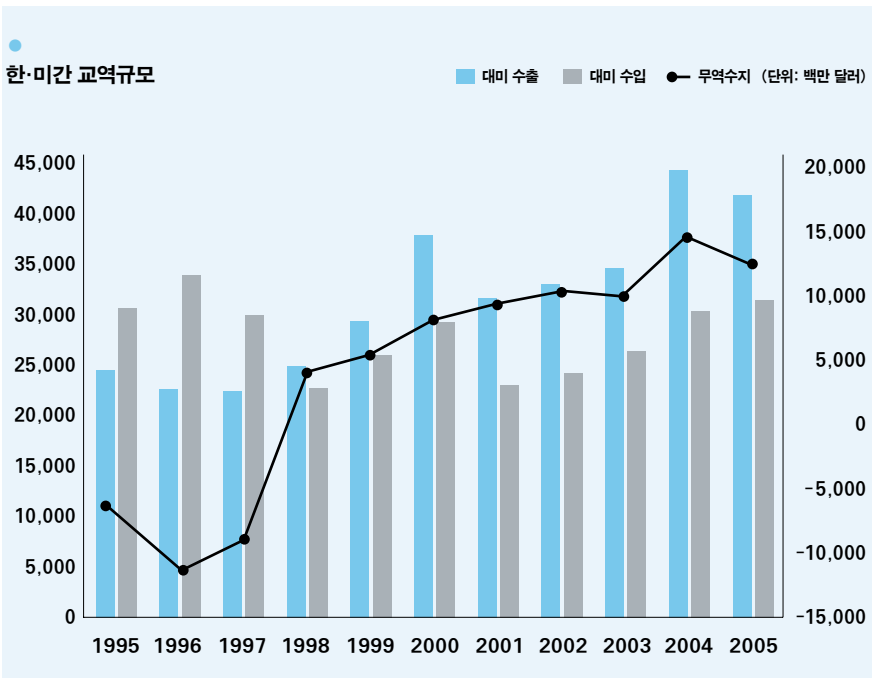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ASEAN,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추세에 뒤늦게 동참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여러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알아본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 : 서로 무엇을 얼마나 사고 팔았나?

1998년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수입을 추월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998년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에 비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였으나 1998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대미국 수입의 감소에 의한 것보다는 수출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실제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 수입 증가율(7.13%)은 수출증가율(11.61%)보다 낮습니다.



주: 대미 수출·입 단위는 왼쪽, 무역수지 단위는 오른쪽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주요 산업인 섬유류, 기계류, 전자 전기제품에 의해 달성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섬유류,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에서 높은 무역수지 흑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에서는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상품별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6,272	-11,635	-8,497	2,402	4,552	8,369	8,835	9,772	9,405	14,067	10,757
농림수산물	-3,945	-4,323	-3,288	-2,310	-2,535	-2,465	-2,447	-2,474	-2,743	-2,693	-2,162
광산물	-1,008	-1,459	-1,203	-1,102	-748	-47	29	105	47	216	1,384
화학공업제품	-3,897	-3,920	-3,515	-1,643	-2,299	-2,806	-2,292	-2,622	-3,034	-3,633	-3,59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73	-771	-663	-152	-173	-317	-321	-32	96	404	532
섬유류	2,474	2,149	2,489	2,966	3,179	3,428	3,058	3,054	2,733	2,612	2,090
생활용품	985	730	696	787	787	817	656	511	362	385	324
철강금속제품	-341	-226	-38	1,275	862	858	610	390	-33	150	620
기계류	-4,819	-5,850	-3,181	561	1,980	2,720	4,636	5,686	6,901	8,622	7,484
전자전기제품	5,184	2,152	296	2,064	3,549	6,170	4,905	5,342	5,525	8,460	4,397
잡제품	-132	-117	-89	-43	-49	11	1	-188	-449	-456	-3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상품중 그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휴대용전화기, 그리고 반도체이며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관련제품(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과 항공기 및 부품입니다.
- 특히, 자동차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미수입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 주력상품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수입이 많은 것은 반도체 관련 중간재의 수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품목명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42,849	100.00	41,343	100.00
1	자동차	10,148	23.68	8,736	21.13
2	휴대용전화기	6,806	15.88	4,854	11.74
3	반도체	4,622	10.79	3,630	8.78
4	석유제품	887	2.07	2,172	5.25
5	자동차부품	1,143	2.67	2,101	5.08
6	컴퓨터	1,919	4.48	1,369	3.31
7	의류	1,544	3.60	1,046	2.53
8	철강판	701	1.64	815	1.97
9	고무제품	695	1.62	799	1.93
10	영상기기	1,240	2.89	767	1.86

주: 비율은 총계에 대한 비중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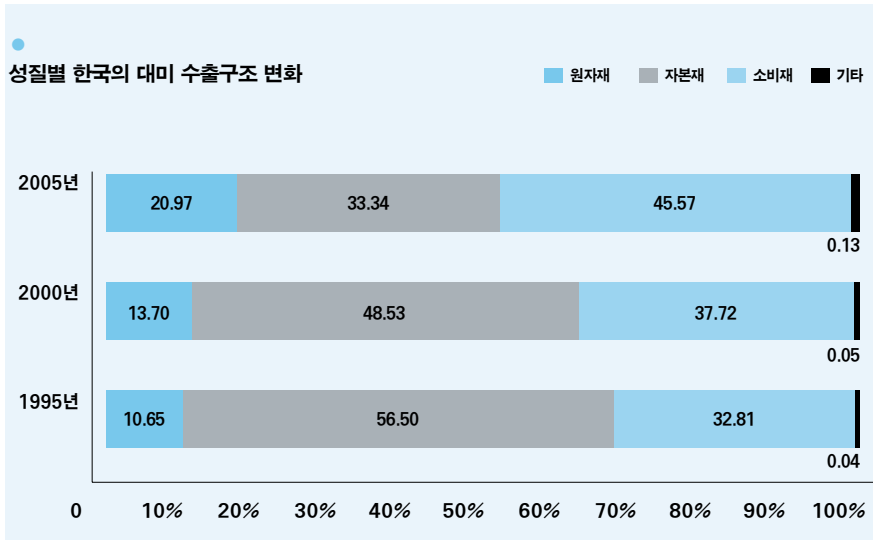
●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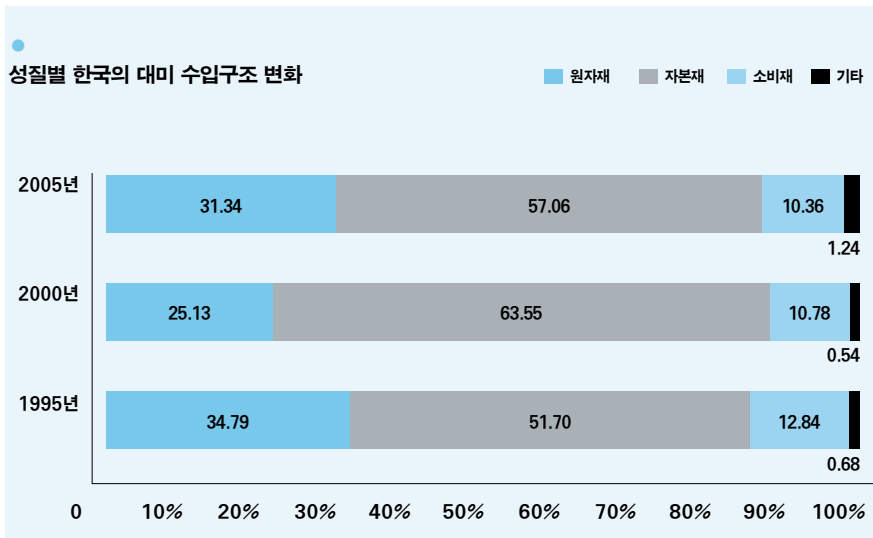
순위	품목명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28,783	100.00	30,586	100.00
1	반도체	5,892	20.47	5,692	18.61
2	반도체 제조용 장비	1,646	5.72	2,274	7.43
3	항공기 및 부품	1,178	4.09	1,646	5.38
4	계측제어분석기	904	3.14	1,170	3.83
5	컴퓨터	701	2.44	781	2.55
6	정밀화학원료	601	2.09	749	2.45
7	곡실류	992	3.45	726	2.37
8	원동기 및 펌프	676	2.35	659	2.15
9	기초유분	724	2.52	600	1.96
10	기타석유화학제품	534	1.86	591	1.93

주: 비율은 총계에 대한 비중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 한·미간 수출·입의 특징을 성질별·산업별로 살펴보면,
 - 성질별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소비재와 원자재의 수출은 증가하고 자본재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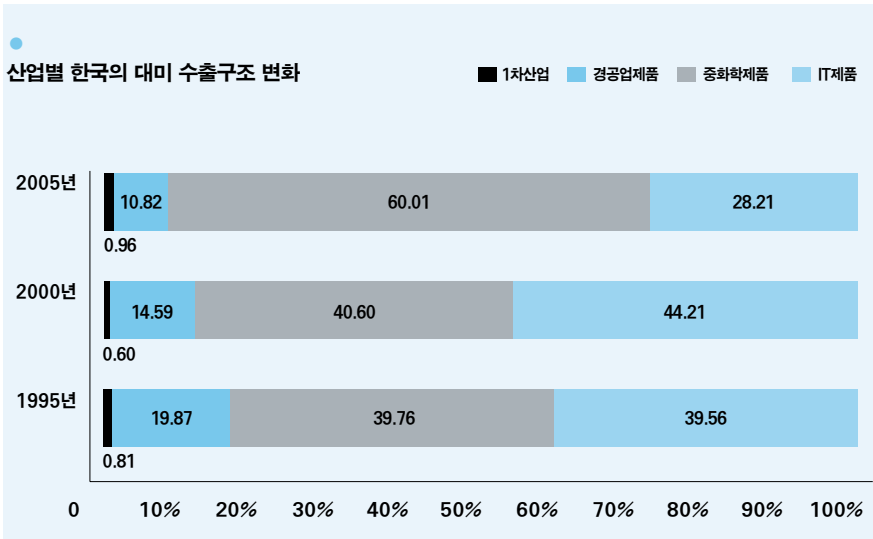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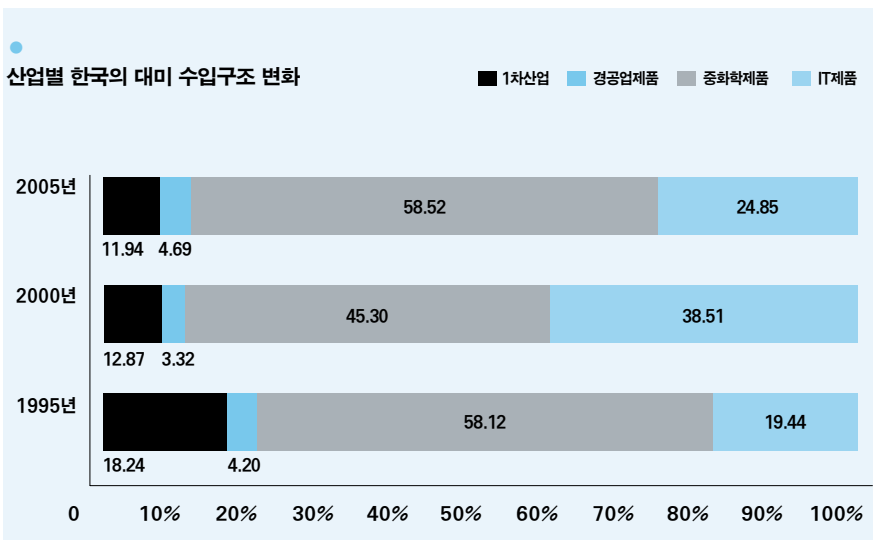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 산업별로는 중화학제품과 IT제품의 수출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학제품과 IT제품의 수입 역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차산업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한국과 미국의 무역장벽 : 무엇이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나?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11.9%로 미국의 4.9%보다 높으며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산물의 경우 양국간 관세 차이는 36.4%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

(단위: %)

	모든 상품	농산물	수산물	광물	석유	목재 펄프 종이 및 가구	섬유 및 의류	가죽 고무 신발 및 여행용품	금속	화학 제품	운송 장비	기계	전자	공산품
한국	11.9	46.2	16.8	5.9	5.8	2.6	9.8	8.9	4.7	6.0	6.0	6.0	5.5	6.2
미국	4.9	9.8	2.0	3.7	2.2	0.9	9.2	7.0	1.9	3.6	2.6	1.3	2.0	3.1

주: 실행 관세율(applied tariff)의 단순평균임 | 자료: APEC 관세율 자료 www.apec-iap.org

- 이와 같은 관세 이외에도 일정량 이상 수입을 못하게 하는 수입할당, 각종 기술표준 및 안전규정,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의 발동,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미흡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존재합니다.
 - 2005년 현재 한·미간 반덤핑조치 현황을 보면, 미국은 철강제품을 위주로 10건을, 우리나라는 리튬1차 전지 제품 1건을 제소하였습니다.
 - 반덤핑조치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로,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한·미간 반덤핑조치 제소 현황** (단위: 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의 한국상품 제소	8	9	7	10
한국의 미국상품 제소	1	2	0	1

주: 특정품목에 대해 3개국에 걸쳐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3건으로 계산 | 자료: WTO 통계, 무역위원회

미국 내 시장 점유율 : 우리는 미국 시장을 얼마나 확보 하였나 ?

미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캐나다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일본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국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2~3%대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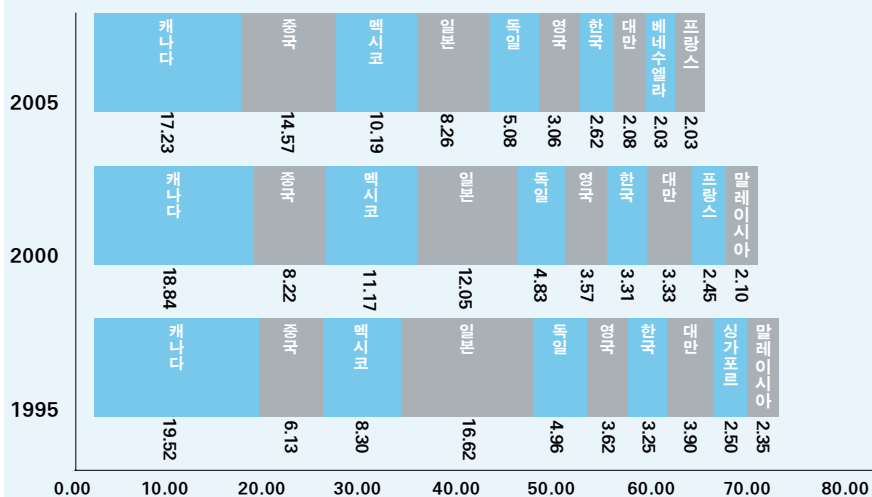
미국의 수입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1995년			2000년			2005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전체	743,500	100.00	전체	1,216,888	100.00	전체	1,670,940	100.00
1	캐나다	145,115	19.52	캐나다	229,209	18.84	캐나다	287,870	17.23
2	일본	123,577	16.62	일본	146,577	12.05	중국	243,462	14.57
3	멕시코	61,705	8.30	멕시코	135,911	11.17	멕시코	170,198	10.19
4	중국	45,555	6.13	중국	100,063	8.22	일본	138,091	8.26
5	독일	36,847	4.96	독일	58,737	4.83	독일	84,813	5.08
6	대만	28,975	3.90	영국	43,459	3.57	영국	51,063	3.06
7	영국	26,891	3.62	대만	40,514	3.33	한국	43,779	2.62
8	한국	24,184	3.25	한국	40,300	3.31	대만	34,838	2.08
9	싱가포르	18,564	2.50	프랑스	29,782	2.45	베네수엘라	33,965	2.03
10	말레이시아	17,484	2.35	말레이시아	25,568	2.10	프랑스	33,847	2.0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한·미 양국간 투자 동향 : 서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금액은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대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양국의 투자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비중이 미국의 대한 투자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 한·미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한국	대세계	5,066	5,152	3,687	4,031	5,969	6,398
	대미국	1,385	1,459	568	1,052	1,338	1,231
	비 중	27.34	28.32	15.41	26.10	22.42	19.24
미국	대세계	1,316,247	1,460,352	1,616,548	1,791,891	2,063,998	-
	대한민국	8,968	9,977	11,856	13,030	17,332	-
	비 중	0.68	0.68	0.73	0.73	0.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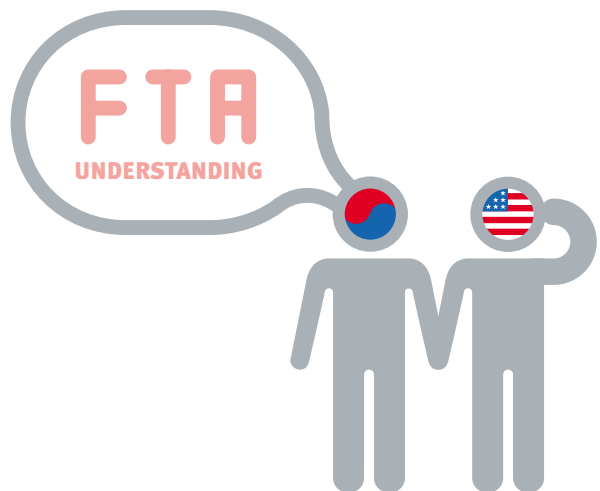
주: 비중은 대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임 | 자료: 'KIEP 세계경제',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www.bea.gov

ii

한·미 FTA 이해

하기

Q&A



Q1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A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 이 밖에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Q2 어떤 내용을 포함하게 될까?

A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간의 상품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 상품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TA 체결국간 시장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들도 상품시장 자유화나 서비스 시장 자유화 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절차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FTA의 협정 포괄 범위

분야	내용
상품 무역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상품 무역 자유화 규정
서비스 무역	서비스시장 개방, 자연인의 이동 등 서비스 무역 자유화 규정
투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철폐 등 투자 자유화 규정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규정
정부조달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참여 규정
기타 무역규범	환경, 노동, 경쟁정책 등 여타 무역규범 규정
분쟁해결	체결국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

-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약(2006. 4)에서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 등 모두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 Group)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 **한·미 FTA 17개 협상분과**

분과	내용
상품무역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 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무역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농업	농산물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섬유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원산지/통관	품목별 원산지기준 설정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
위생 및 검역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 등
투자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서비스	서비스(금융 제외) 자유화, 인력이동 자유화 등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문제
통신/전자상거래	통신, 전자 상거래 분야
경쟁	경쟁조치, 경쟁당국간 협력방안 등
정부조달	정부조달 자유화 방안, 양허하한선, 양허기관 확대 문제 등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
노동	노동 관련 문제
환경	환경 관련 문제
분쟁해결/ 투명성/ 총칙	협정의 해석 등 분쟁해결절차,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Q3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A 한·미 FTA가 체결되어 그동안 관세 등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던 양국간의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입비용이 감소되어 양국간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FTA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어 비효율적인 산업이 경쟁에 노출됨에 따라, 관세장벽 보호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자원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은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7.21%(326억 달러), 후생수준은 6.6%(26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약 52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물론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강한 서비스산업과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대외신인도의 향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문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구분	정책적 효과(단기) (쌀 포함)	자본축적 효과 (중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쌀 포함)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쌀 포함	쌀 제외
실질 GDP (금액 기준)	0.42% (29억 달러 증가)	1.99% (135억 달러 증가)	7.75% (352억 달러 증가)	7.21% (326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금액 기준)	0.61% (24억 달러 증가)	1.73% (68억 달러 증가)	6.99% (281억 달러 증가)	6.6% (263억 달러 증가)
고용 (인원 기준)	-0.51% (85천 명 감소)	0.63% (104천 명 증가)	3.30% (551천 명 증가)	3.10% (518천 명 증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FTA 효과의 발생기간

많은 사람들은 FTA를 체결하면 그 즉시 전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협정들은 품목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자유화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민감하지 않거나 실행세율이 낮은 대부분의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하지만, 민감한 품목은 5~10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거나 심지어 아주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정 발효 즉시 FTA의 모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개별 품목별로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장기간 관세철폐의 유예를 받은 민감한 품목들의 경우 효과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GDP 7%의 증가는 7~10년 후에 나타나는 누적적 경제성장 효과로서 평균적으로는 GDP가 매년 약 1% 정도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후생증가의 의미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수준의 증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FTA 발효 이후 동일한 제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태효과 vs. 자본축적효과

정태효과는 양국간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써 나타나는 단기효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본축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가 투자와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소득이 더욱 증가되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축적 효과는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단지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고 투자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의 연속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동태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자본축적의 경우에도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Q4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FTA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시장을 트고 각자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시장이 상대국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게 되지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상대국의 저가 수입품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됩니다.

-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시장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시장도 상호 개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계는 한·미 FTA의 추진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영화인들 등 일부 서비스업계 종사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내부 분열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때 최고의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국내 이해집단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국가 전체의 이익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이해관계집단들 모두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협의를 뒷받침될 때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 한·미 FTA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함께 협상의 결과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각 업계도 한·미 FTA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TA에 대한 반대가 우리의 살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WTO 협상이나 FTA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서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은 정부가 수행하지만 협상 결과의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는 업계이므로 업계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 전략과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건이라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경제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인한 개방과 구조조정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자유로우며 효율적인 선진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한·미 FTA
걱정
걱정

떨어
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리부터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전반적인 FTA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륙별 '교두보' 국가(칠레: 중남미, 싱가포르: ASEAN, EFTA: EU)와 FTA를 체결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서 이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당시부터 고려해오고 있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04년 하반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2~4월간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 번의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과 9월에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 번의 여론조사와 10회에 걸친 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회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촉진권한의 만료 시한은 양국이 FTA를 추진하는 데 배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와의 FTA를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거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효과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선은 향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래 각국의 국내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FTA는 선진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II-Q1. 왜 미국과 한·미 FTA를 추진하는가? 참고)

● 요컨대 한·미 FTA는 한 단계 높은 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미국의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무역 적자가 나므로 우리에게 손해다?

- 한·미 FTA의 결과 미국에 대하여 무역 적자가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역 적자가 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미국 무역수지의 감소분은 대세계 수출 증가를 통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특정 산업의 무역수지 감소는 전체 무역수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 무역수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래의 분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방법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 수입품을 사기 위해서 기업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원화 공급이 증가하고 달러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는 평가절하되고 이는 국산품의 상대적인 가격 인하로 귀결됩니다. 국산품의 가격인하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CGE 모델을 사용한 분석은 환율변화에 따른 이와 같은 조정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과장되게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한-미 FTA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구분	CGE 정책적 효과 (쌀 포함)	CGE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증대 효과 미고려 (쌀 포함)	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	
			쌀 포함	쌀 제외
대미 수출	12.1% (54억 달러 증가)	15.1% (71억 달러 증가)	27.3% (99억 달러 증가)	22.7% (82억 달러 증가)
수입	29.1% (96억 달러 증가)	39.4% (122억 달러 증가)	58.96% (172억 달러 증가)	44.4% (129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 달러 흑자 감소	73억 달러 흑자 감소	47억 달러 흑자 감소
대세계 (미국포함)수출	2.9% (50.4억 달러 증가)	5.0% (86.6억 달러 증가)	8.23% (154억 달러 증가)	6.6% (124.6억 달러 증가)
수입	5.1% (79.8억 달러 증가)	6.2% (97.4억 달러 증가)	9.69% (151억 달러 증가)	7.5% (118.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29억 달러 흑자 감소	11억 달러 흑자 감소	2.7억 달러 흑자 증가	6.0억 달러 흑자 증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와 국산 전기밥솥

1998년 우리나라는 약 20년간 일본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온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해제하였습니다. 수입 제한을 해제한 품목 가운데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은 전기밥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기밥솥 전체에 열을 가하여 밥맛을 더욱 좋게 한다는 IH(Induction Heating: 전자유도방식) 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서 바닥에서만 가열하는 열판방식 위주의 국산 전기밥솥의 시장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체들은 일본산 전기밥솥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전기압력밥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A/S 및 유통망을 개선하여 결국 일본제품과의 경쟁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에서 성공한 전기압력밥솥을 역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인도네시아 등 미개척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은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FTA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CGE모형에 의한 분석입니다. CGE모형(일반균형모형)이란 경제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일반균형이론에 입각한 일정한 가정하에서 특정한 경제적 변화가 현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분석방법입니다. CGE분석은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한·미 FTA를 예로 들어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우선 관세를 철폐(감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수출입 증가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이것을 정태모형에 의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FTA의 효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우선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다시 저축되어 투자와 자본 축적이 증가함으로써 생산과 소득은 더욱 증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포함한 분석을 자본축적모형에 의한 분석(또는 동태모형에 의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시장개방 사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장개방은 산업 생산성을 증대시킵니다. 보다 값싸고 품질이 좋은 미국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양국 기업들의 네트워크 거래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시장개방에 직면한 기업들이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장개방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자본축적모형 분석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망한다?

●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입니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국내 농업생산규모 최대 2조 원 가량 감소 추정).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 등)의 관세는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과연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일까요?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쇠고기시장 개방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방 이후 국내산 쇠고기가격은 상승하였고 한우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사육기반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특히 수입쇠고기에 맞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수입쇠고기와 경쟁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국산쇠고기 브랜드육을 개발하여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소비자는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던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의 수입쇠고기를 통해 다양한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몰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FTA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FTA 이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면서 고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농업부문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농산물 수입국인 멕시코 농업은 NA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교역, 생산 및 재배면적 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교역증가 : NAFTA 이후 멕시코와 미국간의 교역 증가

- 미국-멕시코 농산물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 %)

	NAFTA 이전 (1991~93년 연평균)	NAFTA 이후 (2001~03년 연평균)	증가율
미국-멕시코 농산물 교역량	6,018	13,211	119.5

자료: USDA/ERS(December 2004)

수출증대 : 채소류와 과일류 중심으로 수출증대

-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대미 수출	대미 수입	무역수지
NAFTA 이전 (1993년)	3,618.3	2,718.5	899.8
NAFTA 이후 (2004년)	8,494.1	7,260.9	1,233.2

자료: USDA(May 2005)

생산 및 재배면적 증대 :

농산물 생산과 재배면적이 NAFTA 이전(1991~93년)에 비해 NAFTA 이후(1994~2001년) 증가

채소류: 생산 39.3% 증가, 재배면적 7.3% 증가

과일류: 19.4% 증가, 재배면적 1.5% 증가

기초 작물류: 7.0% 증가, 재배면적 9.8%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 멕시코 식품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NAFTA 이후 2배 이상 증가

- 미국의 멕시코 식품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직접투자	2,660	2,929	3,579	4,484	4,723	5,300

자료: USDC/BEA(December 2004)

- 또한 한·미 FTA로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1970~80년대 바나나의 경우, 요즘 초등학교생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바나나는 소풍갈 때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어머니가 사주시던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비싼 수입원유를 사용하여 재배하던 바나나는 이제 시장개방 이후 어디서나 값싼 가격으로 서민들도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우리 국민이 겨울에는 포도를 구입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수입이 행해지고 있어 겨울에도 포도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쇠고기의 경우 수입쇠고기가 들어옴에 따라 비싼 한우를 소비할 수 없었던 소비자도 이제는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손실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농업부문에 손해가 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농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큼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이라는 시장환경에 적

응하기까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또한 미국과의 FTA가 모든 농산물 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개방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며 해외 수출까지 늘려가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 농산물 수출이 3.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한·미 FTA를 계기로 재미 교포들의 농산물 수요를 통한 수출이나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특유의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큰 피해를 본다?

●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력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 협상의 주된 대상은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어 서비스산업의 총산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국내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 교역의 네 가지 형태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 교역은 네 가지 공급형태(mode)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제전화 서비스, 국제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등과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mode 1)이라고 하며, 관광, 유학·연수 등과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해외소비(mode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 은행 등과 같이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업적 주재(mode 3)라고 하며, 경영 컨설턴트, 패션모델 등 어떤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자연인의 이동(mode 4)이라고 합니다.

●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발전단계가 가장 고도화된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GDP 기준)은 75%를 넘습니다(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또한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한국 = 100)

국가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89.1	147.9	371.3	186.5	176.9	167.3
일본	73.7	109.2	264.6	127.8	336.7	184.3
프랑스	66.0	10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0	138.9	165.3	156.1

자료: OECD(2002) 및 한국생산성본부(2003)

●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만을 고려했을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진출하여 현지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영업형태, 노하우 등의 격차해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전문 인력의 양성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외국기업이 들어온 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가속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전면개방 당시 국내 유통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체들은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우수 유통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는 동시에 독창적이며 전략적인 경영방식을 개발·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그 결과 외국계 대형할인점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이마트가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외국 대형할인점들과의 경쟁 속에서 경영전략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거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네 가지 공급형태 중 주로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도 없지 않으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서비스분야의 원만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증가시켜 국내 총산출과 고용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면 미국의 전문 서비스 인력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기도 하지만, 유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의 개방 경험으로 볼 때 주로 경영진 또는 중간 관리자 등에 한정됩니다. 반면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간호사, 건축사, 프로그래머 등 국내 전문인력의 미국진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통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 개방 효과

우리나라의 유통서비스시장은 1996년 전면개방되었는데, 특히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유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유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대형할인점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 유통서비스업의 총산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은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시켜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유통서비스 FDI 유치 및 대형할인점 현황

연도	국내 유통서비스 FDI 유치		국내 대형할인점 수 (누적치, 개)
	금액(백만 달러)	총 FDI 대비 비중(%)	
1990	80	8.9	0
1995	180	13.2	19
1996	391	16.9	34
1997	456	14.8	63
1998	1,008	19.0	93
1999	843	7.8	116
2000	698	6.8	164
2001	585	11.9	193
2002	481	12.8	230
2003	513	10.2	248
2004	680	11.5	275

자료: 산업자원부, 체인스토어협회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말살시킨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지난 2006년 1월 말 정부는 다가올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는 후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를 파괴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말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붕괴시킬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크린쿼터(Screen Quota)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스페인 등 6개국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이하 중략)

자료 : 외교통상부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부분 발췌

● 스크린쿼터가 있어야만 우리나라 영화가 일정기간 동안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그 영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일반에 확산되어 관객확보의 기회가 생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사회 또는 정식 개봉 후 영화에 대한 평가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이는 일반인들의 관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영화의 예고편과 제작자의 제작 동기, 평론가의 평가 등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스크린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관객에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스크린쿼터가 없으면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은 보호되지 못한다.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2005년 10월)되어 스크린쿼터와 같은 문화상품 보호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영화가 문화의 한 장르임에는 분명하나, 영화만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가 전통문화나 예술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동안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관습 등이 담긴 영화보다 상업적 흥행 위주의 영화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분야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유지가 아니라 문화·예술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전문 상영관 마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 스크린쿼터가 없으면 우수한 한국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기회가 없어진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장치가 없으면 외국직배사들의 힘에 의해 우수한 한국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미경 외(200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화 유통시장에서 외국직배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03년 현재 외국직배사의 개별시장점유율은 10% 미만이고 이들의 합계시장점유율은 21.9%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유통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상위 배급3사의 합계점유율(2003년 기준 48.6%)은 50% 이하로 시장지배적 배급사업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배급시장 혹은 상영시장을 중심으로 독과점현상이 나타나 끼워팔기, 거래거절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의 적법 운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NAFTA 체결시 멕시코가 스크린쿼터를 포기하여 멕시코 영화산업은 붕괴되었다?

얼핏 보아서 맞는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NAFTA 체결과 멕시코의 영화산업 붕괴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멕시코의 영화산업 붕괴는 멕시코 정부의 잘못된 영화산업 지원정책과 멕시코 폐소화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NAFTA 출범과 동시에 발발한 1994년 폐소화 위기는 영화산업 자유화조치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영화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경제위기 여파로 영화상영 편수가 축소되고 관람객수가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영화업계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영화상영 편수는 1994년 343편에서 1995년 205편으로 하락, 관람객수도 1994년 연간 8,200만 명에서 1995년 연간 6,200만 명으로 감소).

- 스크린쿼터가 없다면 한류도 없다?

스크린쿼터로 최근의 한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비약이 큰 주장이며,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면서 한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쿼터가 없다면 한류도 없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크린쿼터로 외국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우리나라 영화는 외국에 많이 수출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됩니다. 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스크린쿼터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영화는 그만큼 수출 기회를 잃게 됩니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없이 협상을 시작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산업별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 지원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FTA 지원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기금(2004~10년의 7년간 총 1조 2천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한국의 FTA 기금 지원계획안

(단위: 억 원)

사업명	지원계획
경쟁력 제고 지원	8,283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4,017
과수 생산기반 정비	160
과수 전용 농기계임대	150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519
과수 우량묘목 생산	912
과실가공시설 현대화	385
과원규모화	2,140
경영안정 지원	3,488
소득보전 직불	1,808
폐업 지원	1,680
기타	229
합계	12,000

자료: 농림부(2004. 5),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행지침서(안)」

-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로 수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매출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무역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학계와 산업 전문가,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의 수년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목적과 원칙	FTA로 피해입은 기업이나 노동자 지원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무역조정 기업	자격요건	제조업영위 기업으로 아래 3개항 모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피해(단기간 동안 매출액 및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 발생 • FTA로 인한 경쟁상품 수입이 피해의 주원인 • 해당기업의 무역조정계획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적합
	지원사항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무역조정 근로자	자격요건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 영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아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상기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사항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 활용

자료: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

● 한·미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됩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먼저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자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1970~80년대 바나나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쉽게 사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으나 1991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서민들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나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로 칠레산 포도주의 관세가 기존의 15%에서 5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포도주 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주의 종류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산 수입화장품, 스포츠 웨어 등을 값싼 가격으로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면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가 화장품 또는 스포츠 웨어, 스포츠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회사와 스포츠웨어 회사는 앞다투어 질과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므로 소비자들은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혜택 이외에도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한·미 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FTA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일까요?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나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집단에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비교적 언론매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언론과 매체를 접하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방을 논할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논하는데,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망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이 IT, 금융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자국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을 '재편' 하여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D(기술개발) 투자 비중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점에서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의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아래 표 참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유망산업의 기반이 쉽사리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다수의 첨단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들의 발전욕구 또한 강하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미국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과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Green Field Investment: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는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가 증가하여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인력과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2001년)

(단위: %)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이탈리아	미국	OECD 평균
R&D/ GDP	2.0	3.4	2.2	2.5	3.1	2.6	1.9	1.1	2.7	1.9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미국만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중국 등 개도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산업 분야가 신흥개도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첨단산업의 기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은 M&A(인수합병)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내경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증가하여 유망한 국내기업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반드시 한·미 FTA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M&A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피해만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적대적 M&A의 증가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5% 이상 주식 취득시 공개매수, 자기주식 취득 수량제한 폐지 등의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등 다수의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예상처럼 미국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무조건 흡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된다?

● 양극화 심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 진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술 산업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신,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저기술 노동력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개방화 시대의 양극화는 범세계적인 기술 변화에 따른 기술특성별 인력 수요 및 여타 경제적·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진전, 기술변화 등 대외적 요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미 급진전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즉,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산업, 자동차, 사업관련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무역조정지원법」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산업부문에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와만 FTA를 추진한다?

●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륙마다 거점국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FTA 현황을 보면 미주 대륙을 제외하고 동남아의 싱가포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중동의 요르단과 바레인, 대양주의 호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위주의 FTA 추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상 미국은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우려한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단순히 통상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전반 등 복합적인 전략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제일 먼저 추진한 이스라엘과의 FTA는 경제적 중요도나 지역거점 여부보다는 군사 동맹관계, 중동평화 등 정치·안보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싱가포르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지만(지역거점인 동시에 경제개혁 의지가 강해 미래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 정치적인 면에서의 민주화 수준이나 군사 동맹관계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미국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를 FTA 협상 우선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배경에는 외교와 안보상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미 FTA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7대 교역국이고, 두 번째 투자국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사업자들은 보다 많은 사업활동의 기회를 갖게 되고, 소비자들은 폭 넓은 선택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받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투자하기에 좋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작고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정치 전반을 고려한 FTA 추진 전략에 따라 우선 협상국을 선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미국-이스라엘 FTA	1985년 8월 19일 발효
NAFTA	1994년 1월 발효
미국-요르단 FTA	2002년 12월 17일 발효 - 2010년 1월까지 전면 관세철폐
미국-칠레 FTA	2002년 12월 11일 협상 타결, 2004년 1월 1일 발효
미국-싱가포르 FTA	2003년 1월 협상 타결, 2004년 1월 1일 발효
미국-CAFTA	2004년 1월 25일 코스타리카를 마지막으로 협상 완료
미국-호주 FTA	2004년 2월 8일 타결, 2005년 1월 1일 발효
미국-모로코 FTA	2004년 3월 2일 협상 타결, 2006년 1월 발효
미국-도미니크공화국 FTA	2004년 3월 15일 협상 타결
미국-바레인 FTA	2004년 5월 27일 타결, 2005년 12월 31일 비준안 미 상원 통과
미국-CAFTA-DR	2004년 8월 5일 (도미니크공화국을 중미 CAFTA에 통합)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멕시코, 캐나다

*CAFTA (Central America FTA):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 1994년 NAFTA 발효 후에, 멕시코의 경기는 일정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계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NAFTA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으로는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peso)화 위기(1995년)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을 주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70여년에 걸친 경제정책 실패, 채무불이행, 부패 등의 여파가 NAFTA 발효 후에도 여전히 잔존하여,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NAFTA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좋지 못한 경제실적을 NAFTA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 페소화 위기가 NAFTA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의 내적인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멕시코가 정부재정이나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한 요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멕시코의 경제위기에서 오히려 NAFTA 체결은 멕시코가 폐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NAFTA를 통하여 교역량과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었고, 더불어 미국의 지원을 촉진하였습니다.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대미 무역수지가 1993년 80억 달러 적자에서 2004년 40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NAFTA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보다 빨리 극복하게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 **멕시코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0	1992	1993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경제성장률	5.1	3.6	2.0	4.4	5.2	5.0	6.6	0.8	4.4

자료: UN

● **멕시코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2	1993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수출	18,837	37,468	43,117	51,944	80,673	103,306	147,400	141,898	164,522
수입	21,830	48,707	51,196	62,710	74,392	102,577	140,288	117,212	121,909
무역수지	-2,993	-11,239	-8,079	-10,766	6,281	729	7,112	24,686	42,613

자료: IMF DOTS(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T 02.3460.1114 F 02.3460.1122

www.kiep.go.kr